

찰흙·보따리에 담은 마음... 물질과 정신, 하나 되다

August 3, 2016 |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찰흙·보따리에 담은 마음 물질과 정신, 하나 되다

내년 2월5일까지 전시할 여는 '보따리 작가' 김수자

작품 '마음의 기하학' 앞에 선 김수자 작가. 지름 19m의 대형 테이블에 관람객들이 흙공을 만들어 올려놓으면 작품이 완성된다.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wansik@segye.com

전시장에 작가가 지난 10년 동안 사용한 요가 매트가 작품으로 출품됐다. 작가의 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브 클라인의 보따리페인팅 이후 예술에서 신체성이 어떻게 또 다른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자(59) 작가는 끊임없이 몸과 정신, 물질과 비물질 세계가 만나는 플랫폼 구축에 집중해 왔다.

요가는 산스크리트어로 제어(control), 합일(union), 수단(means)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말을 마차에 결합시킨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말처럼 늘 뛰어다니는 마음의 고삐를 요가 수행으로 잡는다는 의미이다. 힌두교 주요 경전인 '요가수스트라'에서는 요가를 '마음의 작용(心作用)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음의 움직임을 억제, 즉 조절하여 인간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몸이 요가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신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보따리를 트러에 싣고 주유하는 것도 정신적 플랫폼에 이르는 길이다.

비디오 작품 시리즈 '실의 궤적'(Thread Routes)은 세계 각지의 원주민 직조문화를 그곳의 자연과 건축에 담으며 인류학의 원형적 미학을 찾는 영상 작품이다. 인간정신의 원형을

물질·비물질 접목 플랫폼 구축 전시 주제는 '마음의 기하학'

“흙덩이 둥글게 만들어가면서
모든 마음도 둥글어 지듯이
보따리 싸는 것도 비슷한 작업”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어두컴컴한 전시장엔 지름 19m의 대형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관람객들은 찰흙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그 위에 놓도록 요청받는다.

“오래전부터 도자기가 갖고 있는 허(虛)의 공간에 관심이 있어 클레이(찰흙)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을 빼고는 흙을 내 손에 움켜쥐고 만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찰흙이 두 손가운데서 움직이면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물질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로 변환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관객과 나누고 싶었다.”

관람객들이 만들어놓고 간 동그란 모양의 찰흙 덩어리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면 작품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런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흙놀이가 정신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시 제목도 그래서 '마음의 기하학'이다. 흙덩이를 둥글하게 만들어 가면서 모든 마음도 둥글어지는 것이다.

“찰흙 덩어리를 둥글게 주물러 만드는 행위가 보따리를 싸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시장 밖 마당에는 '우주의 알'로 알려진 인도 브라만다의 검은 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연역적 오브제'가 있다. 브라만다의 형태를 보따리로 형상화한 것으로 오방색 띠를 두른 타원형의 오브제가 거울 평면 위에 놓여 있다. 거울은 물질과 비물질이 만나는 플랫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따리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차원(Dimension)들을 기하학적(Geometry)으로 재정의한 작업이다. 변형된 보따리라 할 수 있다.”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 레이나소피아미술관과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그리고 올해 초 프랑스 메즈팡피두센타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던 필름 설치작업도 이번 전시에 등장했다. 야외 조각이 설치된 정원 사면을 둘러싸고 전시장 복도 유리창을 윈드 디플렉션 패널(Wind-deflecting panel)로 둘러싼 설치작업이다. 빛이 분산되는 정도에 따라 물질의 형상이 다채롭게 변화하면서 명상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내년 2월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2)3701-9500